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12월 노동시장 열기 예상보다 “후끈”... 다우지수 내림세
- WSJ: 실업수당 청구건 연말 시즌에 하향...노동시장 여전히 강해
- Bloomberg: 12월 연준 의사록, 금리 인하 기대감 투자자들에 썩기... 물가 통제 의지 강했다
- Bloomberg: 캔자스 연방은행 총재, “내년까지 금리가 5% 넘어야”

[IRA와 전기 자동차]

- Bloomberg: EV 세제 보조금 혜택, 테슬라 대신에 현대차에 유리

[주택 시장]

- CNN Business: 올해 미 주택 경기는? 모기지 금리는 6~7% 내외로 하락 예상

[에너지]

- WSJ: 미 천연가스 가격 하락세... 따뜻한 겨울 기온 탓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올해 美 채용 트렌드는 ‘조용한 고용’... 빅테크 업계엔 칼바람
- 한경: 아마존, 예상보다 많은 1만8000명 해고
- 한경: 베드배스앤비욘드 "파산 가능성"..주가 폭락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미 연휴 온라인 매출 3.5% 늘어...파격적 할인 덕
- Cnet: CES 2023 혁신 제품들: 3D 노트북부터 무선 TV까지
- WSJ: 삼성 생활가전 CEO, “테크 침체 당분간 지속될 것”
- Tech Crunch: 소니와 혼다, CES에서 공동 EV 브랜드 “Afeela” 공개
- CNN Business: GM, 도요타 제치고 미국 1위 자동차 탈환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Labor Data Surprise as Job Market Runs Hotter Than Forecast

미 12월 노동시장 열기 예상보다 “후끈”... 다우지수 내림세

- 미국 기업들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채용하고 있으며 덩달아 실업 청구건수도 3개월째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오늘 목요일Stanford Digital Economy Lab와 공동으로ADP Research Institut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주도로 민간 일자리가 지난달의 23만5천개를 상회했다.

- 연방 노동부 자료는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9월 이후 연방 신규 실업 주간 청구 건수도 가장 낮은 수치로 하락했으며 전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낮아지고 있다.
- 특히 일자리 증가는 5백인 미만 기업에서 많았고, 대기업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이래 가장 많은 15만1천명을 해고 했다.
- 일자리가 늘어난 업종은 레저, 환대산업, 교육, 헬스 서비스, 전문지, 비즈니스 서비스 그리고 건축업이다.
- 한편 이같은 강력한 노동 시장 뉴스 탓에 주식은 하락장으로 출발하고 있고, 달러는 강세를 보인다.

Bloomberg 기사

WSJ: Unemployment Claims Fell During Holiday Week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연말 시즌에 하향....노동시장 여전히 강해

- 연말 마지막 주 미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하향, 노동시장이 역사상 계속 타이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방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만9천 낮은 20만4천건으로 나타났다.
-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봄에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후에 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변동성을 줄어드는 4주 평균 청구건수도 6천7백50건 적은 21만3천건으로 나타났다.

WSJ 기사

Bloomberg: Fed Affirms Inflation Resolve, Pushes Back Against Rate-Cut Bets

12월 연준 의사록, 금리 인하 기대감 투자자들에 빼기... 물가 통제 의지 강해

- 연준 관리들이 지난달 회의를 통해 보인 입장은, 물가를 잡기 위한 입장이 확고했으며, 고금리 유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베팅에 빼기를 박았다. 이는 의사록을 통해 밝혀졌다.
- 당초 시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반영했다. 이에 대해 양일간 회의에서 연준 관리들은 물가를 통제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을 투자자들이 과소평가한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 의사록에 따르면 “대중(투자자들)의 오해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금융 상황이 완화되어 가격 안정을 꾀하려는 연준 노력이 복잡하게 될 것이다”(an

unwarranted easing in financial conditions, especially if driven by a misperception by the public , would complicate the committee's effort to restore price stability)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George Says Rates Should Stay Above 5% Well Into 2024

캔자스 연방은행 총재, “내년까지 금리가 5% 넘어야”

- 새해 접어들면서 연준 관리들이 “인플레이가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캔자스연방은행 Esther George 총재는 오늘 목요일 CNBC 기자회견에서 “나는 연준이 금리를 5% 위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가 2% 대로 하향할 때까지 일정 시간 고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애틀란타연방은행 Raphael Bostic 총재도 “나와 동료들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확실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IRA와 전기 자동차]

Bloomberg: IRS Ticks Off Tesla and Makes Hyundai Happy With EV Tax Credits

EV 세제 보조금 혜택, 테슬라 대신에 현대차에 유리

- 인플레이 감축법(IRA)의 재무부 시행령 발표가 3월로 연기되고 임시 시행령만 발표됐다.
- 재무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V 차량 모델을 자동차등록번호로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 테슬라는 일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기있는 5좌석용 Model Y가 재무부에 의해 SUV 차량 세제 혜택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가장 낮은 가격이 6만5천9백불이라 세단으로 간주할 경우 7천7백불의 혜택 조항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러나 유럽과 같은 외국 제조업체와 현대와 같은 아시아 제조업체는 엄격한 요구 사항이 없는 승용차에 대해 별도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 IRA 조항에 대한 현재의 해석에 따르면 일상적인 사람이 운전할 경우 리스한 EV도 세제 공제가 가능한 상업용 차량으로 이론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한국 정부는 미국에 기반을 둔 EV 스타트업인 Rivian Automotiv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루폴(허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 시장]**CNN Business: Here's what to expect in the housing market this year
올해 미 주택 경기는? 모기지 금리는 6~7% 내외로 하락 예상**

- 미 주택 가격은 지난 2020년 봄 이래 거의 40%가 뛰었다. 모기지 금리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전문기관 마다 예측은 천차만별. Realtor.com 은 올해 대략 5%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에 John Burns Real Estate Consulting는 작년 최고치에서 2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주택 가격 향방은 주택 매물 건수, 모기지 금리,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달렸다는 것이다.
-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 금년말에 중간 가격이 \$385,800에 이르면서 주택 가격은 1% 미만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물론 지역별 차이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3%나 4%의 모기지 금리 시대는 가까운 미래에 사라졌지만 금리는 팬데믹 이전의 역사적인 금리인 8% 아래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 즉, Realtor.com은 30년 고정 금리 대출의 금리가 2023년에 7%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Zillow는 올해 고정 금리가 6%로 근접해 내려오면서 5.5%에서 6% 사이에서 연말을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매물이 2월부터 여름까지 늘어나면서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은 5월과 6월에 피크를 보이다가 가격이 판매량이 올해 말까지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에너지]**WSJ: Natural-Gas Prices Plunge as Unseasonably Warm Weather Is Forecast****미 천연가스 가격 하락세... 따뜻한 겨울 기온 탓**

-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해 여름 최고치의 절반 이상 떨어졌다. 북반구의 갑작스런 온난기후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 에너지 위기라는 전망을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올겨울 유럽을 압박하려던 러시아 푸틴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 2월까지 겨울 날씨가 따뜻할 것으로 보여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어제 수요일 2월 미 천연가스 선물가스 가격은 million British thermal units당 \$4.172. 여름 최고치 보다 57%가 가라 앉았다. 이에 따라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 쯤과 비슷하다. 그때도 평상시 보다 따뜻했으며 러시아 침공이 없었을 때였다.

February 2023 natural-gas futures price



Source: FactSet

WSJ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올해 美 채용 트렌드는 ‘조용한 고용’... 빅테크 업계엔 칼바람
- 한경: 아마존, 예상보다 많은 1만8000명 해고
- 한경: 베드베스앤비욘드 "파산 가능성"..주가 폭락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Online holiday sales jump by 3.5% as discounts persuade deal-hungry shoppers

미 연휴 온라인 매출 3.5% 늘어...파격적 할인 덕

- 관련 Adobe의 자료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을 이어가면서 이번 연휴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3.5% 증

가한 2천1백17억 달러를 기록했다.

- 소매업자들은 인플레이 여파로 지갑을 닫고 있는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넘쳐나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상품 주문을 줄이고 높은 할인을 내걸었다.
- 특히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 온라인 매출은 3백53억 달러로 크게 늘었고, 11~12월 온/오프라인 매출은 인플레이 조정 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 기사

Cnet: The Wonders of CES 2023: 3D Laptops, Wireless TV and Shape-Shifting Screens

CES 2023 혁신 제품들: 3D 노트북부터 무선 TV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전자기전 박람회 CES 2023에서 주목해야 할 혁신적인 제품들이 있다.

- **소니의 최초 EV 자동차:** 소니가 혼다와의 협력으로 'Afeela' 라고 불리는 전기 자동차를 개발한다. 차량 외부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 자동차는 2026년 출시될 예정이다.
- **친구 같은 BMW 컨셉트 카:** BMW iVision Dee의 정교한 EV인 이 차량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차 그릴에 움직이는 디지털 얼굴을 넣어 마치 그차가 친구 같은 모습을 띠게 한다는 것.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 색상도 변경할 수 있는 이 기술은 2025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Samsung's Flex Hybrid concept has a screen that can roll and fold.
Samsung Display

- **접히고 말리는 디스플레이:** 삼성이 내놓은 Flex Hybrid는 왼쪽은 갤럭시 폴드처럼 접히고, 오른쪽은 스크롤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이다. 휴대폰 뿐만이 아니라 OLED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 **안경은 필요 없는 3D 노트북:** Asus 노트북의 OLED 스크린은 안경 없이도 아이 트래킹 기술을 사용한 3D 경험을 제공한다.



- **무선 TV:** 스타트업 Displace TV의 무선 55인치 OLED 스크린은 흡착판을 통해 벽이나 창문에 부착하도록 설계되었다. 유선 연결이 아닌 배터리를, 리모컨 대신 모션 컨트롤을 사용한다.
- **건강 모니터링 강화하는 스마트 워치:** Citizen 의 CZ Smart watch는 심박 수, 수면 질, 혈중 산소 농도를 넘어 피로도, 스트레스, 나에게 맞는 활동 주기도 알려준다. 수면과 스트레스가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
- **세계에서 가장 얇은 게이밍 노트북:** Alienware가 내놓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14인치 게이밍 노트북이 이번 겨울 1천7백99달러로 출시된다.
- **LG의 투명 노트북 터치패드:** LG가 신형 그램에서 노트북 아래 부분을 만져야만 나타나는 숨겨진 터치패드 기술을 선보였다.
- **콘솔 게이머들을 위한 새 컨트롤러:** Dell의 Concept Nyx 게이밍 컨트롤러는 콘솔 게이머들이 더 많은 입력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존에 존재하던 키보드와 게임패드 간의 간격을 매워줄 것으로 보인다.
- **LG의 파티용 냉장고:** LG의 MoodUp 냉장고는 19만가지 색상 조합이 가능한 LED 패널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탑재, 냉장고 이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손을 대면 투명해지는 패널을 통해 문을 열지 않고 냉장고 내부를 볼 수도 있다.
- **Roku TV 등장:** 인기 디지털 플랫폼인 Roku가 TCL, Hisense, Sharp 등 TV 제조업체와의 파트너십으로 자체 TV 사업을 확장한다. LG와 삼성의 새로운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LG TV:** 작년 공개된 세계 최대의 OLED TV LG의 97인치 모델이 2023년에는 무선으로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다른 TV 업체들이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 **인텔의 새 CPU:** 인텔이 노트북 성능 향상을 위한 13세대 CPU를 선보였다. Unison을 통해 애플과 안드로이드 기기가 PC에서 텍스트를 주고 받을 수 있고, 4K 외장 디스플레이를 실행할 수 있다. AMD도 새로운 라이젠 7 프로세서를 선보였다.
- **차 안에서 즐기는 클라우드 게임:** Nvidia가 게임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인 GeForce Now를 발표했다. 게다가 대시보드에 스크린이 있는 자동차라면 주차되어 있는 동안 자동차 안에서 게임 스트리밍이 가능해진다. Nvidia는 현재 현대, BYB, Polestar와 협력 중이다.

Cnet 기사

WSJ: Samsung's Consumer-Products CEO Expects Tech Slump to Persist 삼성 생활가전 CEO, “테크 침체 당분간 지속될 것”

- 삼성의 생활가전 부문 CEO가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해 테크 수요가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 팬데믹 이후 기업과 소비자들이 전자제품 지출을 억제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반도체, TV 제조 업체인 삼성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며 타격을 입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한편 삼성은 삼성과 제휴 브랜드의 기기들이 통합되어 작동하는 제품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여 사용자 경험을 확대하는 것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 전문가는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삼성의 생활가전 사업의 수익률을 두 배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WSJ 기사

TechCrunch: Sony and Honda reveal Afeela, their joint EV brand, at CES 소니와 혼다, CES에서 공동 EV 브랜드 “Afeela” 공개

- 소니와 혼다가 공동으로 전기차 개발을 합의한 지 거의 1년 만에 이번주 수요일 CES에서 “Afeela”라는 새 EV 브랜드를 공개했다. 2025년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
- Afeela는 레벨 3 자율주행을 특징으로 하며 자동차 전면의 매체를 통해 차량 외부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또 Epics Games의 Unreal Engine을 사용해 3D 그래픽 게임 엔진을 차량 통합하고, 차량 내에서 엔터테인먼트와 통신, 안전 상황을 시각화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차량 내 컴퓨팅 기술은 퀄컴의 칩 기술을 기반으로 할 예정.

Tech Crunch 기사

CNN Business: GM is the top car seller in America, retaking the title from Toyota GM, 도요타 제치고 미국 1위 자동차 탈환

- GM이 미국 내 자동차 판매 1위 자리를 잃은 지 1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GM은 이번주 수요일 지난해 미국 내 차량 판매가 2백 30만대로 작년보다 3% 늘었고, 분기 판매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2021년 판매 1위를 차지했던 도요타는 4분기 판매량이 13% 증가했지만 연간 판매량이 2백10만대로 10%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신차 판매는 10년 만에 가장 적은 1천4백만 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지난 2년간 자동차 업계를 압박하던 공급망 문제가 개선되면서 2023년에는 생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 불황 우려로 자동차 판매 전망은 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그동안 억눌린 수요로 인해 아직은 수요가 강세이지만, 점차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연준 “연내 금리인하? 시장의 오해”... 낙관론에 경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상승률을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해 올해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4일(현지시간)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재차 밝혔다. 이번 의사록에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말 상승세를 탔던 증시 움직임을 우려하며 연준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사실상 시장에 목소리를 내는 듯한 발언도 담겼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은 지난달 13, 14일 미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상해 4.25~4.5%로 결정했던 FOMC 회의 내용이 담겨 있다. 4차례 연속 0.75%포인트씩 인상한 뒤 처음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기로 결정한 회의여서 일각에선 의사록에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의사록에 따르면 모든 참석자가 “2023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물가상승률 2%’ 원칙을 재확인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